



Hikone Castle 彦根城

ハンゲル

彦根

への旅

히코네로의 여행



⑧오모테고텐(表御殿) [히코네 성 박물관]

오모테고텐(表御殿)은 히코네번 영주가 업무를 보고 함께 영주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곳이다. 메이지 11년(1878)에 해체되었지만 발굴 조사를 거쳐 소와 62년(1987)에 히코네 성 박물관으로 다시 탄생했다. 정무에 이용된 관청 부분은 외관만 복원하고 내부는 이이(井伊)가의 미술품이나 고문서를 전시하고 있다. 영주의 사적 공간인 안쪽 부분은 목조로 충실히 복원되어 있다.

☎0749-22-6100/ 8:30~17:00(입장은 16:30까지)/ 연말 휴관/대인 500엔, 소인 250엔 (히코네 성 세트권 대인 1,000엔, 소인 350엔) / 히코네 성 내

⑦겐큐라쿠라쿠엔(玄宮楽々園) <명승>

4대 히코네번 영주인 이이나오키(井伊直興)가 엔포 5년(1677) 경부터 마쓰바라 안쪽 호수와 맞닿아 있는 히코네 성의 뒷문의 제2성곽에 교외 별저로 축조한 저택이다. 건물 부분을 라쿠라쿠엔(楽々園), 정원 부분을 겐큐엔(玄宮園)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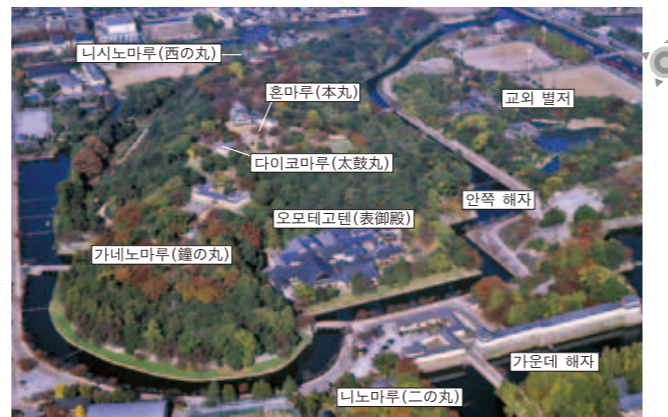


겐큐엔은 광대한 연못을 중심으로 연못 안의 섬이나 후미에 설치된 다리 등이 있어 다양한 근세 전기의 유람식 정원이다. 교외 별저이나 정원이 성내에 현존하는 것은 히코네 성뿐이다.

☎0749-22-2742(히코네 성 관리사무소) / 8:30~17:00/무휴/대인 200엔, 소인 100엔 (히코네 성 공동권 대인 600엔, 소인 200엔)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10분

나와바리(해자, 문의 배치 성곽의 구성 등)의 특징

히코네 성은 근세 초기에 축성되었으나 혼마루(성의 중심 건물) 방어를 위해 설치된 호리키리(땀을 파서 만든 해자) 등 중세 이후의 산성 구조도 가지고 있다. 또한 축성 목적이 세키가하라의 싸움 후 도요토미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여 초기에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 사와야마 성을 기본으로 하여 오타니(小谷) 성이나 나가하마(長浜) 성, 오쓰(大津) 성 등 인접한 구 성곽 건물이나 석단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체 산을 가리는 깊은 초록의 성곽림은 성곽의 구조를 숨길 뿐 아니라 농성 시에는 식재료나 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어진 것이다.



⑨호리키리(堀切)

가네노마루와 다이코마루 사이에 능선을 수직으로 찢은 가라호리(空堀)가 있다. 오테몬(정문)이나 오모테몬(앞문)에서 침입한 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가라호리 위에는 로카바시(복도식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떨어뜨릴 수 있는 다리로 되어 있어 적이 침입하였을 때 떨어뜨려 덴비아구라와 가네노마루 양쪽에서 요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니시노마루와 데구루와(본 성 이외의 작은 성) 사이에도 같은 모양의 호리키리(해자)가 현존하고 있다.



⑩수직 돌담 및 수직 해자

수직 돌담은 적이 경사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산 정상에서 산 기슭에 만들어진 돌담으로 히코네 성 내에는 모두 5곳에 설치되어 있다. 히코네 성에는 수직 돌담 위에 기와 지붕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오시(豊臣秀吉)가 한반도를 침공한 분로쿠, 게이초의 전쟁 시에 쌓아올린 성에 다양한 방어시설로 현재 일본에서는 히코네 성 이외에 스모토 성(효고 현) 및 마쓰야마 성(에히메 현) 등에서 볼 수 있다.

⑪안쪽 해자의 돌담

안쪽 해자에 면한 돌담 상부가 토루로 되어 있는 것이 고시마키(腰巻) 돌담이고 토루의 상부에 돌담을 이용한 것이 하지마키(鉢巻) 돌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돌담은 간사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으나 간토 이북 근세 성곽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관광지 가이드

근세 성곽을 그리워하는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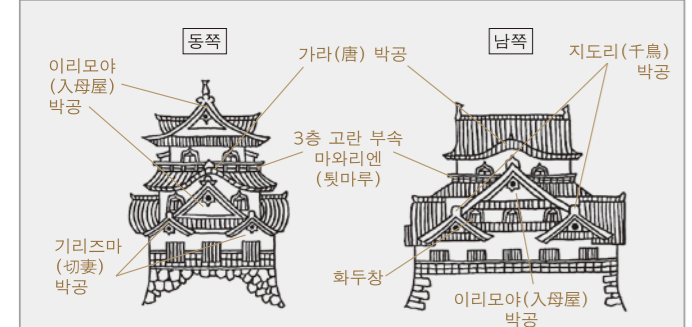
근세 성곽은 지방 영주가 지배하는 영지의 군사, 정치, 경제 등의 거점이었다. 히코네 성은 군사거점으로서 천수각이나 해자 등의 방어구조뿐 아니라 정치나 문화의 거점으로 오모테고텐이나 교외 별저, 나아가 경제 거점으로 성 마을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① 천수각 <국보>

고보즈미(석단 쌓는 방식의 일종) 석단 위에 건축된 3층 3중 천수각. 일반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각층마다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3중의 지붕에는 *기리즈마(切妻), 이리모야(入母屋), 가라(唐) 박공이 조합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에 화두창(꽃모양 창문), 3층의 방루에는 고란이 있는 마와리엔(빛마루)을 네 귀퉁이에 다는 등 변화가 많고 미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천수각이다.



*1 박공(破風): 지붕의 끝에 있는 삼각형의 외벽 부분. 일본 건축의 기리즈마(切妻) 양식, 이리모야(入母屋) 양식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기리즈마(切妻), 이리모야(入母屋), 가라(唐), 지도리(千鳥) 박공 등이 있다.



내관 목조 건물은 대들보의 길이에 비해 뿔보의 길이가 2배 가까이 되는 평면이 특징이다. 동, 서쪽은 끝이 볼록하고 수직의 방향성이 느껴지지만 남, 북쪽은 안정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화두창 화두창은 창틀의 상부가 날카로운 꽃잎처럼 곡선의 형태가 아름다운 창. 곡선이 볼록하고 같이 생겨 「화두창」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중세 이후 주로 사원 건축에 사용되었다.



총 쏘는 구멍 총 쏘는 구멍은 적의 공격에 방어하여 싸우기 위해 총을 쏘기 위한 구멍.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석회를 발라 놓았다. 같은 방식의 「화살 구멍」도 있다. 히코네 성 천수각에는 75개의 총 구멍, 화살 구멍이 발견된다.

*2 가늘고 긴 양식의 야구라(櫓)로 무기의 창고 등에 이용되는 것 외에도 성벽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방위상 중요한 위치에 지어질 경우가 많다. 미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1510~1577)가 나라에 건축한 다문성(多聞城)에서 처음 지어진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3 용통이 긴 돌을 사용하여 쌓을 때 면적이 큰 면을 안쪽에 밀어 넣는다. 틈새가 커서 보기에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튼튼하다. *4 현대의 블록 쌓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다나즈미(돌을 비스듬하게 하여 쌓아 올리는 방법) 방법. 난잡하고 불규칙적인 것이 많은 에도 시기의 다나즈미는 「오토시즈미」라고 불린다.

② 니노마루사와구치 다문야구라(多聞櫓) <중요 문화재>

사와구치를 향해 왼쪽 날개로 뻗어있는 *2다문야구라(多聞櫓)는 메이와 4년(1767)에 성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어 메이와 6년(1769)부터 8년(1771)에 걸쳐 재건되었다. 또한 오른쪽 날개로 뻗어있는 다문야구라는 쇼와 35년(1960)에 복원되었다.



③ 덴비아구라(天釋櫓) <중요 문화재>

성의 오테몬(정문)과 오모테몬(앞문)의 산길이 합류되는 요지에 위치하여 지어진 야구라(櫓)로 양쪽 구석에 이중 건물의 야구라(櫓)가 지어져 중앙에서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치 천청과 같은 모양을 한 야구라(櫓)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어졌다. 이러한 구조의 야구라(櫓)는 유례가 없으며 균형한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야구라(櫓)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몇 번이나 수리를 거쳤지만 가에이 7년(1854)에는 돌담까지 다시 쌓았다. 북도 다리에서 볼 때 우측이 축성 당시의 *3고보즈미(석단 쌓는 방식의 일종)로 좌측이 가에이 연간에 다시 쌓은 돌을 잘라 쌓는 *4오토시즈미(석단 쌓는 방식의 일종)이다.



④다이코몬야구라 <중요 문화재>

혼마루(성의 중심 건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누문에 북을 두어 성 안으로 신호를 했다는데서 이름이 붙었다. 좌측으로는 산의 비위를 가공하여 자연 석단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동쪽에는 벽이 없고 기둥 사이에 고란이 붙은 북도로 되어 있는 드문 구조로 되어 있다.

⑤니시노마루 삼중(三重) 야구라(櫓) <중요 문화재>

천수각 외 히코네 성내에 있던 3층 건물의 하나로 혼마루(성 중심 건물)에 인접하는 니시노마루의 서북 구석에 위치하는 삼중(三重) 야구라(櫓). 동쪽과 북쪽에 각각 1층으로 된 부속 야구라(櫓)는 「<글자처럼 부설되었다. 천수각처럼 장식적인 박공은 없지만 전체를 석회칠하여 검소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야구라(櫓)이다.



⑥마구간 <중요 문화재>

히코네번 영주 등의 말 21마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있는 건물로 전국 근세 성곽에 남아있는 대규모 마구간으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재활용한 성

히코네번 영주인 이이(井伊家)의 기록에는 천수각은 오쓰(大津) 성을 옮길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외 덴비아구라(天釋櫓)나 니시노마루(西の丸) 삼중 야구라(櫓), 다이코몬야구라(太鼓門櫓)도 인접한 나가하마 성(長浜城) 등의 다른 성에서 이축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것은 도요토미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히코네 성을 초기에 완성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용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목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본 고유의 리사이클이기도 한다.



히코네 성 ☎0749-22-2742 (히코네 성 관리사무소) / 8:30~17:00/무휴/대인 600엔, 소인 200엔(겐큐엔 공동) (히코네 성 박물관 세트권 대인 1,000엔, 소인 350엔) /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10분
겐큐엔 ☎0749-22-2742(히코네 성 관리사무소) / 8:30~17:00/무휴/대인 200엔, 소인 100엔 (히코네 성 공동권 대인 600엔, 소인 200엔)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10분
히코네 성 박물관 ☎0749-22-6100/ 8:30~17:00(입장은 16:30까지)/ 연말 휴관/대인 500엔, 소인 250엔 (히코네 성 세트권 대인 1,000엔, 소인 350엔) / 히코네 성 내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기재

축성년: 에도 시대 / 게이초 9년(1604)~ 겐나 8년(1622)
축성자: 이이 나오힌구 · 나오타카
소재지: 시가 현 히코네 시
형상: 히라이마 성(평야 가운데 있는 산, 구릉 등지에 지어진 성)



Hikone Castle 彦根城

덴빈야구라(天秤櫓) <중요 문화재>



덴빈야구라(天秤櫓) <중요 문화재>



다이코몬야구라(太鼓門櫓) <중요 문화재>

축성
연
년
단
기

히코네 성

구(舊) 히코네 번(藩) 이이(井伊)가의 삼십오만석(石)의 위풍을 오늘날에 전한다.

축성 이래 4세기의 역사를 가진 히코네 성은 푸른 비와호(湖)를 배경으로 지금도 이중으로 된 해자(성곽 둘레에 판 못)로 둘러싸인 녹지가 풍부한 성곽림 가운데 삼중 백악으로 된 국보 천수각이 덴빈야구라 등의 중요문화재의 성곽을 따라 위풍당당한 자태를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 성내에는 명승정원이나 복원된 오모테고텐 등도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이 만들어 내는 사계절의 경치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축성에 관한 이야기

때는 "천하를 판가름하는 싸움"이라 불리는 「세키가하라의 싸움」

히코네 성의 역사는 게이초 5년(1600) 9월 15일, 세키가하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후에 *1 도쿠가와 사천왕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우는 이이 나오힌구(井伊直政)에 의해 싸움이 시작된 천하를 판가름하는 싸움은 서군 무장의 배반도 있어 단 하루만에 승패가 결정되어 에도 막부 시작의 디딤돌이 되었다.

나오힌구(直政)는 이 싸움에서의 무공을 인정받아 다음 해 적장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의 거성, 사와야마 성을 받아 초대 히코네 영주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을 건설할 것을 결의했으나 세키가하라에서의 총 상처가 원인이 되어 게이초 7년(1602)에 사망한다. 나오힌구(直政)의 의사를 따라 *2 적자(嫡子)인 나오힌구(直繼)는 가로(家老)인 기마타 모리카즈(木守勝)를 통해 성의 이축 계획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게 자문하여 히코네야마로 이축이 결정되었다. 축성은 게이초 9년(1604)에 시작되어 그 당시 중세 이후의 산성이었던 사와야마 성의 돌담이나 견초를 대부분이 히코네야마로 옮겨졌다고 한다.

*1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천하 재패에 공헌한 이이 나오힌구(井伊直政), 사카이 다다쓰구(澁井忠次), 사카키바라 야스마사(榑原康政), 혼다 다다카쓰(本多忠勝) 4인의 무장.
*2 대를 잇는 아이

히코네 성의 역할

히코네 지역은 에로부터 도산도(東山道)(나중에 나카센도)와 홋코쿠(北國) 가도의 분기점에 위치하여 비와호(湖)에도

접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는 사와야마에 성관이 지어져 이 요충지를 둘러싼 싸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 사와야마 성의 영주로 나와 나가히데(丹羽長秀)나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등의 중신을 배치하는 등 중요시해 왔다.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싸움 후에도 여전히 세력이 강한 도요토미가와 도요토미 색이 짙은 서쪽 지방 영주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이이(井伊)가를 배치하여 히코네 성의 축성을 서둘렀다.

2기에 걸친 축성 공사

히코네 성의 축성에는 약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 공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진다. 전기(게이초 기)의 공사는 막부로부터 봉행이 파견되어 이웃 제국의 영주에게도 도움을 명할 수 있는 *3 막부 공사(천하 공사)로 진행되었다. 게이초 12년(1607)경에는 천수각이나 가네노마루 등, 성곽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지만 게이초 19년(1614)부터 그 다음 해에 걸친 오사카의 진 사이에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싸움이 끝난 후 후기(겐나 기)의 공사가 히코네 번(藩) 단독으로 재개되어 성 마을을 포함한 성곽의 전모가 겐나 8년(1622)경에 완성되었던 것이다.

*3 막부 주도의 축성 공사



수리 및 보존

완성된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가 생기고 풍수해, 지진, 화재 등의 재해도 종종 당하게 되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번(藩)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성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을 맞이해 무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끝나가고 있던 중에 히코네 성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메이지 천황의 호쿠리쿠 순행에 동행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히코네 성에 들러 소실되는 것이 안타까워 천황에게 보존할 것을 청하여 해체가 중지되었다고 한다. 또한 천황의 사촌 자매가 간절히 원했다고도 전해지지만 어쨌든 히코네 성은 다행히 일부 해체되었지만 주요 건물 등은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축성 당시의 모습이 그려워지는 보존 상태가 좋은 성곽으로 쇼와 31년(1956)에 일대가 특별 사적으로 되었다.

0749-22-2742 (히코네 성 관리사무소) / 8:30~17:00/ 무료/대인 600엔, 소인 200엔(견큐엔 공동) (히코네 성 박물관 세트권 대인 1,000엔, 소인 350엔) /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10분



니시노마루(西の丸)삼중 야구라(三重櫓) <중요 문화재>

마구간 <중요 문화재>

니노마루(二の丸) 사와구치(佐和口) 다문야구라(多聞櫓) <중요 문화재>



성 마을 산책 가이드

히코네 성의 성 마을은 가운데 해자와 바깥 해자에 둘러싸인 구역에 무사들의 집이나 마을 집이 합당되어 특정 직업집단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가늘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중심으로 무사들의 집 나가야마이나 마을 집 등은 지난 날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하급 무사 집단 주택

히코네 성의 방어구조의 하나로 바깥쪽 해자의 외측에 있던 하급 무사들의 거주지는 현재도 가늘고 긴 형태로 된 주택 배분 형태 및 주택의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히코네 번(藩)의 하급 무사 주택에는 문이나 담을 지어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등으로 규모는 작지만 무사들의 주택 체제인 것이 특징이다.



사와야마 성 유적

가마쿠라 시대부터 싸움의 요지로 중요시 되어 에이로쿠 4년(1595)에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가 성주가 된다(다른 설도 있음). 세키가하라의 싸움 후 히코네 성 축성에

따라 파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산허리에 돌담 일부가 남아있을 뿐이다. 산정에서는 히코네 성이나 비와호(湖)를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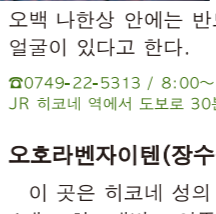
료탄지(龍潭寺)

사와야마의 기슭에 있는 선종의 고찰. 학문의 절로 변창하여 학승의 교과목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남아 있다. 특히 「후다라쿠(補陀落: 관음보살의 거주지)의 정원」의 아름다움이 알려져 있다.



덴네이지(天寧寺)

11대 히코네번 영주 「나오힌구」가 불의 아이를 임신한 하녀에게 죽음을 명하지만 후에 상대가 아들임을 알고 모자의 공양을 위해 세웠다. 본당 옆의 나한당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



0749-22-5313 / 8:00~17:00 / 200엔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30분

▶발행 / 문의

히코네 시 산업부 관광진흥과: 522-8501 시가 현 히코네 시 모토마치 4-2 TEL.0749-22-1411 FAX.0749-22-1398 URL: http://www.city.hikone.shiga.jp/ E-mail: kanko@ma.city.hikone.shiga.jp

유메코바시 캐슬로드

에도의 변화함이 재현된 새로운 옛 거리. 건물은 흰색 벽, 검은색 격자, 기리즈마(切妻) 지붕 (팔(八)자 모양의 지붕) 등으로 거리 풍경이 통일되어 음식점, 잡화점, 기념품점이 나란히 있다.



(유메코바시 아카리 관)

히코네 전통 산업인 일본풍 양초 테마관, 캔들 판매, 오리지널 캔들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0749-27-5501 / 2F 갤러리는 유료, 체험 유료 / 9:30~17:30 / 화요일 휴관 (감축일일 경우에는 개관, 다음날 휴관) / JR 히코네 역에서 도보로 15분



온반초 스퀘어

다이쇼(大正)의 낭만적인 풍치가 흐르는 곳에 음식과 기념품의 테마관 「온반초 다이닝」이나 일본, 서양, 중국 음식점이 모여있다.



비와호(湖) 유람(히코네 향)

「다케시마」 코스와 비와호(湖) 팔경 가운데 하나도 셀 수 있는 「치쿠부시마」 코스가 있다.

0749-22-0619 (오미마린 히코네 향 영업소) / 다케시마=소요시간 1시간 10분 1720엔, 치쿠부시마=소요시간 2시간 30분 3300엔 / JR 히코네 역에서 서틀버스로 10분 히코네 향에서 하차하여 바로



◀히코네 성 총회도(彦根御城下惣絵図)

(히코네 성 박물관 소장) 마쓰바라 안쪽 호수와 바깥쪽 해자는 매립되어 있지만 토지 구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0749-22-2617 / 9:00~17:00 / 무료 / JR 히코네 역에서 차로 15분